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교회와 담임목사는 KPCA 해외한인장로회 캐나다 서노회 소속(밴쿠버삼성교회, 밴쿠버지구촌교회 와 같은) 교단입니다.
우광현 담임목사는 한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이었으며, 서울북노회에서 안수받았습니다.

## KPCA 해외한인장로회

**KPCA** 는 1976년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의 소수 교회들이 모여 설립된 이래 캐나다, 멕시코, 중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주, 일본 그리고 유럽을 포함하는 해외 한인교단 중 가장 큰 규모의 교단입니다. KPCA는 현재 미국교회협의회(NCCCUSA)에 속한 36가맹교단 중 유일한 동양인 교단이며, 미국 장로교회(PCUSA)와 한국 예장통합 교단과 함께 목회자 이동과 교류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 인도네시아 장상택 선교사

에벤에셀교회와 기도로 협력하는 교회
- 빅토리아한인교회

## 모임안내

- 주일예배 오후 1시 50분
- 금요모임 매주 저녁 7시 (당분간 휴회)

## Online Service

778-888-9543
vanebenezer.com
카톡 오픈채팅 -
"밴쿠버에벤에셀교회 문의"

## 교회소식

- 소그룹모임안내 : 매월 첫째주는 성찬성례가 있습니다.
- 이번 주 성경통독 **11월 8일 호세아 14장 - 11월 14일 아모스 3장**

1.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의 죠이〉『하시죠』 말씀을 매일 나눕니다. 성경통독과 맞추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 〈귀국〉 성도님들의 기도로 은혜가운데 치료를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3. 〈생일〉 1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혜림 (6), 우광현 (7)
4. 금요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5. 본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장상택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기독교 대표 영성작가 시리즈

### 299. '자존심이라는 감옥'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_빌 2:3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의 대부분은 사실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온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과도한 욕망이 우리를 늘 긴장 상태로 만든다. 겸손은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벗어난다. 내 존재 가치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명되었음을 믿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을 증명하려는 과도한 애씀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_C.S. 루이스 C.S. Lewis

제 8권 45호 2026년 11월 8일

vanebenezer.com

#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The Lord At Their Head*

미가 2:13

밴쿠버에벤에셀교회
Ebenezer Korean Community Church
3977 Albert St, Burnaby. V5C 2E2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19

## 주일예배

*에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Please stand all who are able

| | |
|---|---|
| 경배와 찬양 Praise&Worship | 다같이 |
| *기원 Invocation | 인도자 |
| *사도신경 Aposties Creed | 다같이 |
| 사죄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인도자 |
| 찬송 Hymn | 383장 |
| 연보 Offering | 인도자 |
| 교회소식 Announcement |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하박국 3장 17-19절 (구약 1304) |
| 말씀선포 Sermon | 우광현 목사 |

### 여호와만 나의 힘

| | |
|---|---|
| *축도 Benediction | 우광현 목사 |

**SUMMARY 300**

삶의 기반이 무너진 텅 빈 계절 속에서도, 하박국은 환경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참된 감사는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터져 나오는 반응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사라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험준한 위기 속에서도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 소그룹나눔

1. 나는 어떤 타입인가요?
   -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긴다 VS 주변 사람을 만나 푼다
   - 툭툭 털고 빨리 일어선다 VS 한동안 멍하니 슬퍼한다
   -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감사한다 VS 살아있고 숨 쉴 수 있어 감사한다
   - 원망부터 튀어나온다 VS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 통장이 텅 비면 불안해서 잠이 온다 VS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버틴다

2. 솔직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내 삶에서 조건 없는 감사가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① 물질과 재정의 팍팍함 앞에서 감사가 뚝 끊길 때
② 내 건강이나 가정의 평안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③ 자녀나 진로 등 내가 애쓰는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④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열매나 보상이 없을 때
⑤ 매일 반복되는 퍽퍽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 나지 않을 때
⑥ 기타:

3.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험준한 바위산 같은 삶의 위기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처럼 가볍고 담대하게 건너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① 월요일만 되면 숨이 턱 막히고 출근하기 싫어지는 일터의 스트레스와 관계 앞에서
② 통장 잔고나 물가 상승, 사업의 팍팍함 때문에 먹고사는 재정의 문제로 한숨쉴 때
③ 아침에 눈뜰 때마다 온몸이 찌뿌둥하고 체력과 건강이 옛날 같지 않아 서글플 때
④ 사춘기 자녀의 반항이나, 도무지 내 뜻대로 꼬여만 가는 가정 내의 묵은 갈등 속에서
⑤ "내가 이 나이에 잘 살고 있나?" 하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
⑥ 기타:

4.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5글자로 표현하고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 지난 주 연보

- 주일연보 $ 95
- 십 일 조 $ 400

온라인연보계좌
offering@vanebenezer.com

### 이렇게 기도합시다

1. 교회를 지켜주소서
주의 몸 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며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2. 예배를 지켜주소서
오직 예수만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3. 믿음을 지켜 주소서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4. 가정을 지켜주소서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5. 건강을 지켜주소서
질병과 스트레스, 사고로 부터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위로 하옵소서
6. 학교와 직장을 지켜주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듣는 자들이 되며 성취할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7. 삶을 지켜주소서
비전으로 살게 하시고 목적과 기대를 주셔서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베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달의 암송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_살전 5:16-18